한라산 불법행위 기승… 드론 띄워 단속

불법행위 2023년 59건서 작년 99건으로 다시 증가세
최근 무단출입·야영·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잇따라
도, 열화상·고해상도 드론 투입 야간·새벽 단속 강화

한라산 내에서 불법행위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당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대응에 나섰다.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라산 내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21년 122건에서 2022년 155건으로 증가한 뒤, 2023년 5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78건, 2025년 99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43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으며, 지난 7월에만 야영 1건, 출입금지 3건, 오물투기 1건, 흡연 1건 등 총 8건이 단속되는 등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거나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야영을 벌이는 등 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라산국립공원은 인공지능(AI) 드론을 활용해 정기 순찰은 물론 야간·새벽 시간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한라산국립공원은 그동안 정기 순찰과 특별·야간·기동순찰로 위법행위를 단속했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첨단 기술이 장착된 드론을 활용해 입체 단속 체계를 갖췄다.

단속 대상은 ▷탐방예약제 미예약 무단 입산 ▷탐방 시간 위반 무단 출입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출입 ▷불법 야영·비박 ▷공원 내 음주·흡연·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및 희귀식물 채취 ▷무속행위 등이다.

이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지난 13일 어리목 일원에서 드론 전담 부서인 우주모빌리티과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협업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야간이라는 조건을 고려해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했으며,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라산국립공원은 탐방객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성판악·관음사 탐방로에서는 지난해 응급환자가 52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483건은 하산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됐다.

한라산 드론 활용 특별단속. 제주도 제공

적외선 카메라 활용 식별. 제주도 제공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리목·영실·관음사·성판악 등 주요 4개 탐방로를 중심으로 AI 드론 안전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행위 위반 시 흡연은 최대 200만원, 무단출입 최대 50만원, 오물투기 10만원, 음주 10만원, 취사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위반 시 자연물 불법 굴·채취와 벌채, 자연유산 형질변경 등은 자연공원법·자연유산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광복절 연휴 서귀포 공영관광지 '북적'

관람객 6만2000명 발길…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중국인 중심 외국인 2배 가까이 늘고 야간관광도 활기

올해 광복절 연휴 기간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에 내외국인 관광객 6만2000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6%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과 야간 관람객 급증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7개소를 찾은 관람객은 6만2166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9906명보다 1만2260명(24.6%) 증가한 규모다.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지난해 22만4342명보다 많은 관광객 23만2000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에 제주 전체 관광객 증가율 3.4%에 견줘 서귀포시 공영관광지 관람객 증가율은 24.6%로 약 7.2배 가량 높다.

특히 공영관광지 관람객은 제주도민을 제외하면 6만547명으로, 이번 제주 입도객 23만2000명의 26.1%를 차지했다.

공영관광지별로는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2만3069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어 천지연폭포 1만6884명, 정방폭포 1만1519명, 천제연폭포 6110명 등의 순이다. 특히 주상절리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급증했고, 천지연폭포는 27.8%, 정방폭포는 18.6% 각각 증가했다. 용머리해안, 산방산, 감귤박물관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관람객은 1만574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918명 대비 98.9%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람객이 9373명(전체 외국인의 59.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576명), 대만(497명), 러시아(204명) 등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방문이 이어졌다.

야간 개장 40여년 만에 야간 조명을 새 단장한 천지연폭포 야간 관람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람객은 1만6884명으로 지난해 1만3214명보다 27.8% 늘었고, 이 가운데 야간 관람객은 2181명으로 지난해 620명보다 1561명(251.8%) 폭증했다. 야간 관람객 비중도 지난해 4.7%에서 올해 12.9%로 8.2%포인트 상승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남원농민들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를"

송영훈 의장, 남원읍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재해예방시설 확충, 농자재 가격 안정 지원 요청

서귀포시 남원읍지역 농민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제주남원농협을 방문해 농업인 및 농협 관계자들과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훈 의장과 오경남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와 제주남원농협 관계자 및 지역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농업인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와 함께 종합영농지원센터 건립,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현실화와 가격안정·수급조절 강화,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제2감귤유통센터 건립 및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수입 감귤 대응 등 감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더불어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기반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 면세유·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안정 지원, 행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훈 의장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감귤 가격 및 수급 안정은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EPR제도' 활용 자원선순환 추진

7월 기준 1391t 수거… 최근 3년 평균 대비 3% 증가

서귀포시가 자원선순환 환경 선도를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류, 복합재질 필름, 폐가전제품 등 5가지 품목의 수집 효율을 적극 높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EPR제품 수거량은 1391t 규모로 지난 3년 동기 평균 대비 3%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 수거량은 폐형광등 11.7t, 폐건전지 13.4t, 종이팩류 29.7t, 복합재질필름 607.1t, 폐가전제품 729.5t 등이다. 폐형광등은 수은 제거 후 유리 원료로, 폐건전지는 금속파우더나 고철로 재활용된다. 종이팩은 화장지로, 복합필름류는 열분해 후 재생유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폐가전제품은 선별·파쇄 후 고철과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된다. 폐가전제품 중 소형 제품은 시에서 운영 중인 84개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배출할 수 있다.

'EPR제도'는 제품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 사용 후 폐기시킬 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해 폐자원 재활용 운영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2026년 하반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학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며 프로그램은 44개로 가요교실, 건강체조, 웰빙댄스, 스마트폰 활용 등이 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는 내 인생 책 한권 쓰기와 필라테스가 편성됐다.

신청모집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방문 접수로 이뤄진다.

백금탁기자